

治腫廳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

서지연¹·김남일¹·안상우^{2*}

1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2 : 한국한의학연구원

Historical research of the Chi Jong Cheong, - korean ancient tumor medical center

Seo Ji Youn¹, Kim Nam Il¹, Ahn Sang Woo^{2*}

1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Korea tumors occurred frequently, and the tumor medicine used to treat them developed. Because tumors due to Koreans' physical constitution and environment and there has always been an impeding need for a cure, traces of such efforts can be found throughout Korean medical history. During the mid-Chosun dynasty, the government founded a government office that specialized in curing tumors. This study observ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is institution.

Key Words : Chi Jong Cheong, korean ancient tumor medical cente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 서론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癰瘍질환이 다발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중의학 역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癰瘍질환은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과 의식주에서 비롯된 질병이고, 이를 치료해야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노력의 산물들을 속속들이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素問』의 「異法方宜論」에서는 東方지역의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고 짠 음식을 좋아해서 癰瘍의 병이 많으며 치료는 砭石으로 한다고 하였고,¹⁾ 또 『山

海經』 「東山經」의 “高氏의 山下에 箴石이 多하다”는 구절을 郭璞이 “箴石은 가히 砥針으로 만들어 癰腫를 治한다”라고 주해하였는데, 이를 통해 癰疽를 치료하기 위한 砭石術이 고조선시대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 삼국시대의 의서 『百濟新集方』에는 肺癰을 황기 단방으로 치료하는 처방이 등장하는데, 이는 동시대의 중국 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독자적인 처방이었다.³⁾ 그 뿐이 아니라, 고구려의 금관이나 백제건축 양식에 인동(忍冬, 그 꽃은 金銀花)무늬가 들어가는데, 인동은 清熱解毒 消腫去膿의 효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1) 『黃帝內經·素問』 「異法方宜論」 “東方之域，天地之所始生也，魚鹽之地，海濱傍水，其民食魚而嗜鹹，皆安其處，美其食。魚者使人熱中，鹽者勝血，故其民皆黑色踈理，其病皆爲癰瘍，其治宜砭石。故砭石者，亦從東方來。”(이정록, 『渤海醫學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3.)

2)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pp.27-28. 이 책에서는 素問이 춘추전국시대에 성립된 것이나 의학지식은 그 이전 것이 전해온 것이며, 산해경은 선진시대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인정되어 있고, 선진시대는 고조선의 후기에 해당하므로 砭石術이 이미 고조선에서 사용되어 그것이 漢土에까지 전하여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밝히고 있다.

3) '김'의 논문(김홍균, 조선 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의 주석 1)에 따르면, 『百濟新集方』의 이 처방은 갈홍의 저작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처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기치료에 대한 전통이 유구하고 독창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과가 있는 중기치료의 要藥이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중기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劉涓子方』, 『瘡疽論』이 呪禁試의 과거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당시 치종의학에 대한 수요가 많아 과거시험과목에도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논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의서에 나타난 한방외과에 대해 고찰하였으며⁴⁾, 그 논문을 통하여 알려진 우리나라의 외과전문서적은 비록 적으나⁵⁾, 구급의서류, 일반의서류에서 외과질환을 비중 있게 다루어왔음을 밝힌 바 있다.

조선중기에 설치되었던 治腫廳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두중⁶⁾, 손홍렬⁷⁾, 이규근⁸⁾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조선중기에 治腫廳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당대의 외과발달수준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당시 治腫廳이 어떤 취지로 설치되었으며,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그와 관련된 사료가 미비하였기 때문이었다. 논자는 任彦國과 그의 치종의학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翰臯觀外史』⁹⁾라는 자료를 통해 조선중기에 설립된 治腫廳이 任彦國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治腫廳이 어떠한 일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그 동안 治腫廳에 대하여 연구된 바를 정리하고, 아울러 새로이 얻은 지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1. 治腫廳의 설립목적 및 역할

그동안 治腫廳이 어떠한 목적과 취지로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이 있었을 뿐 정확히 밝혀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손홍렬은 성종 혹은 그 이전부터 瘡腫과 각종 惡疾 치료에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醫員을 발탁·표창하고, 이들을 專門醫로 양성했던 것으로 추측하였고¹⁰⁾, 이규근은 전의감과 혜민서 등에 흠어져 있던 치종의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治腫廳을 설치한 것으로 추측하였다.¹¹⁾ 즉, 국초에는 전의감과 혜민서 등에서 중기치료를 맡아왔다가 치종의학이 발달해감에 따라 점차 치종의원들이 분화되어 나와 治腫廳에 소속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이전 연구자들이 참고한 자료들을 토대로 그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翰臯觀外史』에 나온 내용을 추가하여 이를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선행 연구자들이 참고한 자료를 토대로 治腫廳이 설치되기까지의 정황을 살펴보자. 성종실록¹²⁾을 보면 1474년 당시 전의감과 혜민서에 瘡腫을 다스리는 의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5년 갑오 8월 16일 : 노공석이 전의감·혜민서 관원을 제사의 집사로 선정하지 말라고 청하다

장례원 사의(掌隸院司議) 허훈(許薰) 등 5인(人)이 윤대(輪對)하였다. 사평(司評) 노공석(盧公奭)이 아뢰기를, “제사는 나라의 큰 행사입니다. 제사에 반드시 재계하는 것은 그 정결(精潔)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 관원은 직책이 병을 다스리는 데 있으므로 비록 창종(瘡腫)같은 더러운 병을 손으로 만지지는 아니 하더라도, 원컨대 이제부터는 제사의 집사(執事)로 선정(選定)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掌隸院 司議許薰等 五人輪對。司評 盧公奭 啓曰：“祀，國之大事。祭必齋戒，所以致其潔也。典醫監、惠民署官員，職在治病，雖瘡腫污穢之疾，莫不手撫，願自今 勿差¹³⁾祭執事。” 從之 (조선왕조실록, 성종 5년 갑오(1474, 성화 10) 8월 16일 (무술))¹⁴⁾

이를 통해 1474년에는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瘡腫과 같은 질병도 함께 다루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中宗 38年(1543) 8월에 성립된 『大典後續錄』 卷

4) 줄고, 「우리나라 의서에 나타난 한방외과에 대한 개괄」, 한국사학회 학술대회, 2006.
5)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외과전문서로는 『治腫秘方』, 『治腫指南』, 『白光炫知事公遺事 附 經驗方』, 『瘍醫微』, 『若山好古腫方撮要』, 『三十六腫圖錄』가 있으며, 이 중 국내에서 구해볼 수 있는 것은 『治腫秘方』과 『若山好古腫方撮要』가 있다.
6) 김두중, 상계서.
7) 손홍렬, 「조선중기 의료제도의 개편(治腫廳의 置廢와 三醫司를 中心으로)」, 『구암학보』, 1993.
8)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 -治瘡을 중심으로-, 『장서각』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9) 『翰臯觀外史』는 조선 정조-순조 시기에 활약한 金鏞(1766-1821)가 魚叔權의 「稗官雜記」와 徐居正의 「筆苑雜記」, 南孝溫의 「秋江冷話」, 李珥의 「石潭日記」를 비롯한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60종 야사를 140권 70책으로 정리한 방대한 野史叢書이다. 이 책 안에는 任彦國, 李耳 등의 治腫醫에 관한 자료도 담겨있다.

10) 손홍렬, 상계논문, p.41
11) 전의감과 혜민서 등의 外司로 흠어져 있던 치종의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중기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治腫廳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世宗朝 이후 치종의학의 발달과 함께 治腫廳의 설치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근, 상계논문.)
12) 여기서 실록의 내용은 이규근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민족문화추진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원문과 해석을 인용하였다.
13) ‘差’로서는 ‘선정하다’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差’는 ‘羞’의 誤字일 것으로 보인다. 원본을 찾아 대조해보지는 못했다.
14) 출처 : 민족문화추진회 웹사이트

四, 兵典· 遞兒에 治腫醫員一이라는 직명의 기록을 보면 1543년에는 치종의원이라는 治腫을 담당하는 전문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遞兒···治腫醫員一···(『大典後續錄』 卷四, 兵典· 遞兒)¹⁵⁾

또한 治腫廳의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本朝 宣祖 36년에 治腫廳을 다시 設置하였는데, 그 初置年과 革罷年代는 알 수 없다. 腫氣의 治療를 담당하였는데, 후에 典醫監에 合併하였다. 教授 1員은 典醫監教授를 本廳에 데려와 소속시켰으며, 鍼醫 3員, 前衛 10員, 生徒 10인이 있었다. (本朝 宣祖三十六年 復置治腫廳 初置與革罷年代未詳 掌治腫 并于典醫監 有教授一員 以典醫監教授 移屬本廳 鍼醫三員 前衛十員 生徒十人 (『增補文獻備考』 卷223, 職官考十, 「典醫監 附治腫廳」)¹⁶⁾

治腫廳의 설치연대와 혁파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위의 구절들만으로 보면 제도권 내의 의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治腫을 잘 다루는 인력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을 치종의원에 임명하고 治腫廳에 소속시킨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논자는 이와 관련하여 『翰臯觀外史』중에서 治腫廳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고자 한다.

다음은 경국대전의 내용인데, 의원 중 방서에는 능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질병을 잘 치료하는 경우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중 특히 종창(腫瘡)이 유일하게 구체적인 병명의 예시로 나온 것으로 보아 종창(腫瘡)이 당시에도 고질병의 대명사로 여겨질 정도로 흔하면서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국대전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16년(1485)부터 이므로 적어도 이때부터 종기치료를 특기로 하는 의원들이 특별 채용되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 의원(醫員)이 의서[方書]는 해독하지 못하더라도 종창이나 여러 가지 악질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성과를 제일 많이 거둔 사람 가운데 1명을 연말에 보고하여 채용한다.[산파이면 요식(料食)을 준다.](‘醫員雖不解方書能治瘡腫及諸惡疾成效最

茶者一人歲抄啓開鉸用(產婆則給料)’ (『經國大典』 禮典, 「獎勸의 條」)¹⁷⁾

종기치료를 특기로 하는 의원들이 채용되었던 것은 엄연히 역사기록으로 남아있다. 『翰臯觀外史』에 의하면 任彦國과 李耳는 종기치료를 잘하기로 명성을 얻고 각각 호남과 영남으로부터 서울로 부름을 받고 올라와 특별 채용된다. 『翰臯觀外史』에서는 아울러 治腫廳은 바로 이들에게 종기치료를 베풀어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과, 젊은 의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술을 전수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 내용이 그것이다.

任彦國이라는 사람은 호남 사람으로서, 종기를 잘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예조가 대신들과 상의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任彦國을 불러오도록 하여 비로소 서울로 왔다.·····영남에 선비 李耳(李耳)라는 자가 있었는데 또한 종기를 잘 치료했다. 任彦國의 사례에 의거하여 불러서 서울(京師)로 오게 하여 녹봉을 주었다.·····任彦國과 李耳 두 선비가 연이어 서울로 불리워 오자, 예조에서 임금께 젊은 의관들을 뽑도록 계를 올림으로써, 몇몇 이들이 그 침법을 전수받게 되었고, 따로 도읍내 중앙 경저에 治腫廳을 설치하여, 침의로 하여금 매일 수시로 일을 보도록 하였다. 무릇 종기를 앓는 사람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고 궁궐 500리 이내 지역(기전)의 백성은 왕진도 가서 치료하게 하였다. 그러니, ·우마를 타고 와서 효과를 보는 이들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공을 치하하여 전의감 직장(直長) 자리를 주고, 벼슬도 개성부 월령(月令)까지 올려 주었다. 5,6년 후에는 그 의술이 다 세밀해졌지만, 후진들이 본받아 배우는 것은 매우 느렸다. 治腫廳을 세워 진행한 일들은 후에 조정에서 의논하여 폐지하였다가, 만력 갑술년(선조 7년, 1574년)에 이르러 경연관이 영남인 陳堯이 참으로 종기를 잘 치료하는 재주가 있다고 역마로 불러올리도록 계를 올려 주청한 바가 있었다. 주상께서 그에게 의학교수직을 주시고 治腫廳을 설치하여 의술도 가르치던 任彦國·李耳의 전례에 따라 조정과 민간, 사대부와 백성들이 종기가 나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게 되었다. (有任彦國者, 居湖南, 以治瘡名. 禮曹議于大臣, 啓請召來始至·····嶺南有士人李耳者, 亦精治瘡. 依任

15) 서울大學校 奎章閣 [編], 『大典後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 註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p.189.

16) 본문과 해석은 이규근의 상계논문, p.8에서 재인용

17)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에서는 아래 내용의 출처를 ‘成宗 16年(1485) 乙巳經國大典(卷六 吏典) 勸勸의 條’라고 밝혀놓았으나, 『신편 경국대전』에서 확인해본 결과 禮典 장려(獎勸)의 條에 있었다. (윤국일 옮김,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2005, pp.206-207 참조)

彦國例, 召致京師而祿之. 任李二士之相繼在京也, 禮曹啓准選年少醫官, 若干人受其鍼法, 別設治腫廳于都內中央京邸, 使 鍼醫逐日常仕. 凡病腫者絡繹, 往治畿甸人民, 則馭諸牛馬以來得效者不可勝紀. 以其有功輪付典醫監直長, 職及開城府月令. 五六年之後, 其技皆精, 後進慕效頗趨. 其業後以朝議革罷, 至萬曆甲戌, 經筵官以嶺南人陳克誠有治腫才, 啓請乘駟, 上來授醫學教授, 其設廳授業一依任李故事, 中外士庶之得腫者復有治療之路矣 (『翰臯觀外史 一』, pp.108-109)

위의 『翰臯觀外史』에 실린 내용으로 볼 때, 治腫廳은 지방에서 종기치료로 이름을 날리던 任彦國과 李耳를 서울로 불러온 후 그들의 종기치료술이 매우 탁월했기에 종기를 치료하는 법도를 후진들에게 교육하고, 아울러 서울의 종기를 앓는 백성들에게 종기를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특별히 설치한 기구이다. 즉, 治腫廳은 치종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구인 동시에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술을 베푸는 대민 의료기구였던 셈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治腫廳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뛰어난 의술을 가진 治腫醫 任彦國과 李耳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호남과 영남에서 종기를 치료하는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져 역마로 서울로 불러온 사람들이다. 治腫廳의 설치가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 출신의 두 사람이 가진 뛰어난 치종술을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의원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위에서 만력 갑술년에 영남인 진각이 종기를 잘 치료하자 전례에 따라 治腫廳을 설치하자는 계를 올렸다는 데에서 治腫廳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종기치료에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에서 治腫廳까지 설치해가면서 이들에게 의료와 교육의 기회를 베푼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이 독창적일뿐 아니라 뛰어나 후인을 양성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의술이 많은 백성들에게 시술하기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鄭士龍은 『湖陰雜稿』¹⁸⁾에서 任彦國이 근래에 없던 묘법을 쓴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安衛는 任彦國 의술의 탁월함을 편작이라고 할 만하다고 치하하고 있다.

任彦國이 침을 사용하여 종기를 치료하는 묘법은 근래에는 없던 바입니다. . . . (『任彦國用鍼

治腫之妙, 近來所無. (『湖陰雜稿』, 卷之八, 雜著 「請收彼任彦國傳習鍼術狀」)

任彦國이 스스로 그 묘한 이치를 터득해서 병을 만나서 문득 치료하는 데 즉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없었고, (그 의술이) 치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병이 아직 발하기 전에 미리 병을 살폈고,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으니 비록 편작이라고 일컫는다 하더라도 사양할 바가 없다. (. . . 自得其妙 遇病輒施 莫不立效 不止治腫而已 . . . 察病於未發之前 回生於已死之後 雖謂之扁鵲 無讓 (『治腫秘方』「序」))

그의 이러한 의술은 영은사 승려로부터 침법을 배운 뒤에 스스로 그 묘한 이치를 연구하여 터득한 결과이며¹⁹⁾, 다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에서 응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창조적으로 응용하여 개발한 것이기도 했다.

다만 내가 친히 그가 종기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미 침을 놓은 후에 반드시 태운 피꼬리살을 붙여주었다. 그 이유를 묻자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말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는데 태운 피꼬리살을 붙여주자 상처가 아물었다. 나는 사람과 말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 방법을 사람에게 시험해보았는데 효과가 있었다.” (‘但余親見其治腫, 既鍼之後, 必燒鷹肉以傳之. 詰其由, 則吾居鄉見治馬瘡者, 燒鷹肉傳之即愈. 吾意人馬皆同, 故試之有效.’ (『翰臯觀外史 一』, p.109))

토란 — 일명 모립이고, 본초명이 토우라는 것이 이것이다. 문드러지게 하고 갈아 그 즙을 취하여 종이 위에 퍼서 종기가 난 곳에 붙이고 자주 교환해주어라(찜은 것은 효과가 없다). 그 기가 寒하면서 嚴하여 그 嚴한 까닭에 능히 독기를 제어하여 깊이 들어가게 하지 않고, 그 기가 寒한 까닭에 능히 뜨거운 것을 제어하여 다시는 성하게 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臣이 지난 임진년에 풍증을 얻어서 6년 간 낫지 않다가 이것을 얻은 후에 영원히 나았고, 매번 사람들에게 시술할 때마다 반드시 그 효과를 거두었다. (『土卵 一名母立 本草名其土芋者是也 爛磨取汁 攤紙上 附當處 數易(擣則無效) 其氣寒而嚴 以其嚴故 能制其毒氣而不使遠去 以其寒故 能消其熱候而不復熾發 臣 去

18) 『湖陰雜稿』는 조선 중기의 문신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시문집인데, 제8권 잡저에는 정사룡이 任彦國과 관련하여 계를 올린 내용이 실려 있다.

19) “...任君彦國 世居井邑 天性至孝 其母患腫 百藥無效 幸於靈隱寺遇一老髯 傳受針法 以治母病 其後 自得其妙 遇病輒施 莫不立效 不止治腫而已...” (『治腫秘方』「序」)

壬辰年 得風腫 六年不得差 得此而後 永痊 每施於人而必得其效也’ (『治腫秘方』「土卵」)

뿐만 아니라 그의 의술은 주로 침과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약재를 이용한 것이었으므로²⁰⁾ 많은 백성들에게 응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 방법이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방법이었다면 수많은 백성을 치료하기 어려웠을 것이나, 그의 방법은 간단하고 효과는 강력했던 것이다. 고치기 어려운 증기에 이처럼 경제적이면서도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국가에서 다른 이들도 배우게 하고 백성들에게 인술을 베풀도록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李耳에 대해서는 『翰臯觀外史』의 기록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任彦國과는 다른 방법을 써서 증기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 · · 영남에 선비 李耳(李耳)라는 자가 있었는데 또한 증기를 잘 치료했다. 任彦國의 사례에 의거하여 불러서 서울(京師)로 오게 하여 녹봉을 주었다. 그 기술이 任彦國과는 약간 다른데, 반드시 경락을 누르면서 침을 놓았으며 그 혈이 10여 곳에 이르렀고, 이 치료에 힘입어 낫는 사람은 열사람 중 예닐곱 명이었다 · · · (· · · 嶺南有士人 李耳者, 亦精治瘰. 依任彦國例, 召致京師而祿之. 其術與任少異, 必按經絡而鍼之. 其穴至十餘處, 賴以得愈者十之六七 · · · (『翰臯觀外史』一, p.109))

증기는 매우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었으며,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금조차도 쉽게 낫지 않아 고생하던 질병이었다. 즉 내의원이라 하더라도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국가에서는 민간에서 쓰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과적이고 가치만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²¹⁾ 治腫廳 설치 는 어찌 보면 국가가 민간의학을 수용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띤 형태라 볼 수 있다. 지방에서 의사를 불러와 정부기관까지 설치해서 이들의 뛰어난 의술

20) 任彦國의 의서 『治腫秘方』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治腫秘方』에 등장하는 약재들은 土卵, 鹽湯, 蟻灰 등 주로 단순하고 구하기 쉬운 것이다.

21) 경국대전 예전(禮典)의 장려(獎勵)의條 의원(醫員)이 의서[方書]는 해독하지 못하더라도 종창이나 여러 가지 악질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성과를 제일 많이 거둔 사람 가운데 1명을 연말에 보고하여 채용한다. [산파이면 요식(料食)을 준다.] (『醫員雖不解方書能治瘰腫及諸惡疾成效最茶者一人歲抄啓聞敘用(產婆則給料)』 (『經國大典』禮典, 「獎勵의條」))

을 배우게 하고 백성들을 치료하게 할 정도이니 말이다. 이처럼 治腫분야에 있어서 특히 민간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그만큼 우리의 치중의학이 유구하고 중국의 선진 의학을 능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 治腫廳의 설립연대 추정

— 任彦國의 활동시기(1538~1553)를 기준으로 하여

『增補文獻備考』에서는 治腫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本朝 宣祖 36년에 治腫廳을 다시 設置하였는데, 그 初置年과 革罷年代는 알 수 없다. 腫氣의 治療를 담당하였는데, 후에 典醫監에 合併하였다. 教授 1員은 典醫監教授를 本廳에 데려와 소속시켰으며, 鍼醫 3員, 前衛 10員, 生徒 10인이 있었다. (本朝 宣祖三十六年 復置治腫廳 初置與革罷年代未詳 掌治腫 并于典醫監 有教授一員 以典醫監教授 移屬本廳 鍼醫三員 前衛十員 生徒十人 (『增補文獻備考』, 卷二百二十三, 職官考十, 「典醫監, 附治腫廳」))

이처럼 治腫廳의 初置年과 革罷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김두중은 이에 대하여 治腫廳이 “적어도 經國大典이 성립된 成宗 16년 이후부터 中宗 初頃に 발족되어 오던 도중에 그 업무가 不振하므로 그 職制가 革罷되었다가 宣祖 25年 壬辰亂 및 丁酉再亂으로 말미암아 外科의 瘡瘍에 관한 의학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므로 同 36년에 다시 설치되게 된 것일 것이다²²⁾” 라고 추측하였다. 또한 손홍렬은 종종 대부터 治腫廳 설립시기를 成宗 말에서 中宗 代 혹은 明宗 代로 보고 있어²³⁾ 治腫廳의 초창 년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김’이나 ‘손’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 즉 경국대전에는 治腫廳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治腫廳이 설립된 것은 경국대전 성립 이후인 成宗 16년(1485)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宣祖 36년(1603)에 부설되었다고 하므로 그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혁파되었음이 확실하다.

여기에 治腫廳 설립의 다른 기준을 덧붙이자면, 任彦

22)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93, p.271.

23) 손홍렬, 「조선중기 침구학의 발달」, 『구암학보』 4,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 1996, p.200.

國과 李耳가 서울로 불려와 활동하기 시작한 뒤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治腫廳이 설치된 연대를 좀 더 좁혀볼 수 있다. 李耳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나, 任彦國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들이 남아있으므로 任彦國의 죽적을 통해 治腫廳의 설립시기를 좁혀보는 것은 가능하다.

任彦國에 대한 기록이 실려있는 책은 『治腫秘方』과 하나는 鄭士龍이 쓴 『湖陰雜稿』라는 문집, 는 김려가 편찬한 『翰臯觀外史』가 있다. 호음잡고의 저자 鄭士龍은 성종 22년(1491)에 태어나 선조 3년(1570)에 사망하였는데, 정사룡은 『湖陰雜稿』에 임금에게 任彦國을 등용하여 침법을 전수하기를 청하는 내용을 실고 있으므로 任彦國과 동시대를 살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任彦國의 생물연대도 비슷한 무렵인 16세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任彦國이 사망한 것이 1559년 이전이며²⁴⁾, 『翰臯觀外史』의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5~6년 이상 治腫廳에서 일한 것이 확실하므로²⁵⁾ 죽기 전까지 治腫廳에서 일했다고 보더라도 늦어도 1553년 이전에는 治腫廳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任彦國이 저서인 『治腫秘方』에서 임진년(1532년으로 추정²⁶⁾)에 풍증을 앓아 6년간 고생하다가 토란고를 발명하여 사람들에게 시험해서 누차 효험을 보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任彦國이 治腫廳에서 활약한 것은 그의 의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1538년 이후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신의 증기조차 치료하지 못하는 의원을 국가에서 중용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治腫廳은 1538년에서 1553년 사이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治腫廳의 혁파와 부설 (1554~1603)

정확한 혁파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위에서도 볼 있듯이 ‘治腫廳을 세워 진행한 일들은 후에 조정에서 의논하여 폐지하였다’고 전해지며, 이후 다시 설치가 된다. 『翰臯觀外史』에서는

만력 갑술년(선조 7년, 1574년)에 이르러 경연관이 영남인 진각이 참으로 증기를 잘 치료하는

24) 『治腫秘方』의 「序」에 따르면 『治腫秘方』이 간행된 1559년 당시에 任彦國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것으로 나온다.

25) ‘……그 공을 치하하여 전의감 직장(直長) 자리를 주고, 벼슬도 개성부 월령(月令)까지 올려 주었다. 5,6년 후에는 그의 의술이 다 세밀해졌지만, 후진들이 본받아 배우는 것은 매우 느렸다.……’

26) 16세기 중 임진년에 해당하는 해는 1532년과 1592년(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이 있다. 그런데 任彦國이 이미 죽고 난 뒤인 1559년에 『治腫秘方』을 간행했다는 것으로 보아 任彦國은 그 이전에 사망한 것이므로 위의 임진년은 1532년으로 보인다.

재주가 있다고 역마로 불러올리도록 계를 올려 주청한 바가 있었다. 주상께서 그에게 의학교수직을 주시고 治腫廳을 설치하여 의술도 가르치던 任彦國·李耳의 전례에 따라 조정과 민간, 사대부와 백성들이 증기가 나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게 되었다. (至萬曆甲戌, 經筵官以嶺南人陳壳誠有治瘡才, 啓請乘駟, 上來授醫學教授, 其設廳授業一依任李故事, 中外士庶之得瘡者復有治療之路矣. (『翰臯觀外史 一』, p.109)²⁷⁾

라고 되어 있다. 『翰臯觀外史』이외에 선조 7년에 治腫廳이 다시 설치되었다는 다른 기록은 없고,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선조 36년에 治腫廳이 다시 세워졌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練藜室記述』에서는 선조 37년에 다시 설치되었다고 하여 두 기록에 1년의 차이가 있다. 이로 볼 때, 治腫廳은 선조 7년에 다시 설치되었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선조 36년~37년 즈음에 다시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 7년과 선조 36년 사이에는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영남인 陳壳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治腫廳에서의 그의 활약상은 확인할 수가 없다.

전의감(典醫監) : 중부 견평방(堅平坊)에 있다. 개국 초에 설치했다. 대궐 안에서 쓰는 의약(醫藥)을 바치고 신하에게 〈약을〉 내려 주는 일을 맡는다. 선조 36년에 治腫廳(治腫廳)을 다시 설치하였다가 후에 본감(本監)에 합쳤다. ○ 제조 2원, 정 1원이고, 부정은 감하고, 첨정·판관·주부·의학교수 1원씩, 직장 2원, 봉사 1원, 부봉사 2원, 의학 훈도 1원, 참봉 2원, 습독관(習讀官) 30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제1권 경도(京都))²⁸⁾

전의감(典醫監) : 고려에서는 ‘태의감(太醫監)’·‘사의서(司儀署)’·‘전의시(典醫寺)’라 하였다.

○ 태조는 전의감(典醫監)을 설치하여 의약(醫藥), 대내(大內)의 용품 공급, 사여(賜與)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 선조 (37년)는 治腫廳(治腫廳)을 설치하여 증기(腫氣) 치료를 맡게 하였는데, 뒤에 전의감(典醫監)에 병합하였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7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제사(諸司))²⁹⁾

27) 金鏞, 『翰臯觀外』 一, p.109.

28) 출처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inchu.or.kr/>

그렇다면 治腫廳은 왜 중간에 혁파되었을까?

먼저 治腫廳을 이끌만한 차세대의 능력 있는 治腫醫가 없었기 때문에 혁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5,6년 후에는 그 의술이 다 세밀해졌지만, 후진들이 본받아 배우는 것은 매우 느렸다’ 고 한 것을 통해서 任彦國과 李耳가 후진교육을 했음에도 이들을 대신할 만한 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진들이 본받아 배우는 것이 느렸다는 것은 비단 의학적인 소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治腫廳의 업무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더럽고 냄새나는 瘡腫을 기피하는 분위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환자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했을 것이다. 뜻을 이어갈 후진이 없는 상태에서 任彦國과 李耳가 빠진 治腫廳은 전처럼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어 혁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翰臯觀外史』에서는 ‘治腫廳을 세워 진행한 일들은 후에 조정에서 의논하여 폐지하였다’ 고만 언급하여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추후 조정에서 의논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4. 治腫廳의 부설과 그 이후 (1603~)

治腫廳은 선조 36년³⁰⁾(1603)에 부설된다. 김두중은 이에 대해 ‘도중에 그 업무가 不振하므로 그 職制가 革罷되었다가 宣祖 25年 壬辰亂 및 丁酉再亂으로 말미암아 外科的 瘡傷에 관한 의학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므로 同 36年에 다시 설치되게 된 것’³¹⁾이라고 하며, 治腫廳의 부설취지를 전쟁과 연관시키고 있다.

물론 김두중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난 것은 1598년이며, 治腫廳이 부설된 것은 1603년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외과적 창양에 관한 의학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어 전쟁이 끝난 후 5년이나 지난 후에 治腫廳을 세웠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의 治腫廳의 성격은 종기를 앓는 백성들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주고, 치중술을 전수하는 데 있었으므로 전쟁의 외과적 상처를 치료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治腫廳이 혁파되었다 부설되고 중간에 전쟁을 겪으면서 성격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翰臯觀外史』에서 볼 수 있듯이³²⁾ 任彦國과 李耳의 전례를 들어 영남인 陳壳을

등용하여 治腫廳을 다시 세우자고 논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治腫廳이 부설된 것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전쟁으로 더욱 피해를 겪은 삶을 살고, 종기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달래고 그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의 배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전쟁이 외과의학 발달에 중요한 계기와 자극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전쟁 중에 종기가 돌아나는 역병이 돌았고, 화살독으로 종기가 돌는 등 종기가 임진왜란 즈음에 더욱 만연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전쟁에서의 부상과 외상을 확대 해석하여 治腫廳이 그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治腫廳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는 백성들에게 종기치료 혜택을 널리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반면, 왜란 이후에는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달래고 위로하여 국가에 대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이전에 治腫廳이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부설된 治腫廳은 다시 혁파되었는데, 혁파연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규근은 그의 논문에서 현종 3년(1662)까지 治腫廳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때까지는 治腫廳이 존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³³⁾ 다음이 1662년도의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治腫廳에 대한 기록이다.

治腫廳 교수·침의 의녀 등은 매일 本廳에 모여 병자가 오면 침을 놓고 병가에서 招聘하면 가서 보는 것이 恒式입니다. 부진한 자가 있으면 교수는 罷黜하고 鍼醫·醫女 등은 有司로 하여금 治事하여 本廳은 관의 일을 포기하고 의녀들은 料食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일이 심히 한심합니다. 전번에 禮曹로부터 摘奸한 즉 교수 金萬直은 內局에 入直하여 醫官은 1人만 있을 뿐이며 의녀 5인은 모두 비어 있으니 허물이 심합니다.(승정원 일기 174冊, 현종 3년(1662) 6월 17일조)³⁴⁾

32) ‘治腫廳을 세워 진행한 일들은 후에 조정에서 의논하여 폐지하였다가, 만력 갑술년(선조 7년, 1574년)에 이르러 경연관이 영남인 진각이 창으로 종기를 잘 치료하는 재주가 있다고 역마로 불러올리도록 계를 올려 주청한 바가 있었다. 주상께서 그에게 의학고수직을 주시고 治腫廳을 설치하여 의술도 가르치던 任彦國·李耳의 전례에 따라 조정과 민간, 사대부와 백성들이 종기가 나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게 되었다.’ (其業後以朝議革罷, 至萬曆甲戌, 經筵官以嶺南人陳壳誠有治瘡才, 啓請乘駟, 上來授醫學教授, 其設廳授業一依任李故事, 中外士庶之得瘡者復有治療之路矣 (『翰臯觀外史』 一, pp.108-109.))

33) 이규근, 상계논문, p.9.

34) 해석은 이규근의 논문에서 인용. (이규근, 상계논문, p.9)

29) 민족문화추진회, 『연려실기술』10,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2, p.76.

30) 『練藜室記述』에서는 선조37년이라고도 함

31) 김두중, 『한국의학사』, p.271.

선명하게 入啓定奪하여야 합니다. 근래 (李延年, 以禮曹言啓曰, 治腫廳教授, 與鍼醫醫女等, 逐日會於本廳, 病人來則即爲鍼治, 病家招之, 則即爲往見, 定爲恒式。本曹時數字缺有不進者, 則教授罷黜[黜], 鍼醫醫女等, 令攸司從重囚治事, 入啓定奪於先朝矣。近來本廳之官, 拋棄官事, 醫女等, 徒費料食, 事甚可駭。即者自本曹摘奸, 則教授金萬直, 入直內局, 醫官則只一人見在, 醫女五人皆闕, 極爲過甚, 竝令攸司, 從重囚治,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위와 같은 기사를 보전대, 점차로 治腫廳의 운영은 파행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투철한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 없었기에 治腫廳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治腫廳을 전의감에 병합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任彦國과 李耳, 두 인물로부터 시작된 좋은 제도가 후대 사람의 나태함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사례이다. 治腫廳이 폐지된 이후 治腫醫들은 전의감과 혜민서에 나뉘어 배치되어 관료와 서민들에 대한 종기치료를 담당하였고, 아울러 치종생도에 대한 치종교육 및 왕실과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치종의녀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였다.³⁵⁾

연도	사건	비고
성종 5(1474)	종기치료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1538~1553 (연도미상)	治腫廳 설치 (1538년에서 1553년 사이로 추정됨)	중종 38 (1543) - 大典後續錄에 治腫醫員이라는 직책 등장
(연도미상)	治腫廳 혁파	
선 조 7(1574)	경연관이 任彦國과 李耳의 전례에 따라 治腫廳을 부설할 것을 건의	
임진왜란·정유재란 (1592~1598)		
선조 36(1603)	治腫廳 부설	
현종3 (1622) 이후	治腫廳 혁파	
혁파 이후	治腫醫들은 전의감과 혜민서에 나뉘어 배치됨	

원문은 <http://sjw.history.go.kr/>
35) 이규근, 상계논문, p.10.

III. 결론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종기 이환율이 높았으므로 각 시대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종기는 흔하면서도 고치기 어렵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 앓아가는 질병이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시대마다의 우리나라 의학의 당면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중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기치료 전문 기관인 治腫廳을 설치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治腫廳에 대하여 『翰臯觀外史』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뛰어난 치종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구이자,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술을 베푸는 대민 의료기구였다. 治腫廳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任彦國의 치종술은 향약을 이용한 단방과 침술이 핵심으로 간편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하고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대민 의료를 펴기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1. 『翰臯觀外史』에 의하면 治腫廳은 지방에서 종기치료로 이름을 날리던 任彦國과 李耳를 서울로 불러온 후 그들의 종기치료술이 매우 탁월했기에 종기를 치료하는 법도를 후진들에게 교육하고, 아울러 백성들에게 종기를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특별히 설치된 기구이다. 즉, 治腫廳은 뛰어난 치종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구이자,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술을 베푸는 대민 의료기구였다. 治腫廳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任彦國의 치종술은 향약을 이용한 단방과 침술이 핵심으로 간편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하고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대민의료를 펴기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2. 任彦國의 활동시기를 고려해볼 때, 治腫廳은 1538년에서 1553년 사이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治腫廳은 처음 설치된 이후 혁파되었다가 선조 7년에 부설되었고, 다시 혁파되었다가 선조 36년~37년 즈음에 다시 설치되었다. 治腫廳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는 뛰어난 치종술을 가진 두 治腫醫를 중심으로 치종술을 교육하도록 하여 치종술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백성들에게 종기를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널리 주고자 하는 것이었던 반면, 왜란 이후에는 여기에다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달래고 위로하여 국가에 대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治腫廳의 운영은 점차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현종

3년(1622) 이후에 영영 헐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任彦國이나 李耳를 이을만한 인재의 부재 때문일 것이라 여겨지나, 확실치는 않다. 추후 治腫醫, 治腫術을 대하는 당시의 시각 등에 대해 조사해본다면 그 정황을 자세히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IV. 참고문헌

1. 『湖陰雜稿』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1989)
2. 『治腫秘方』,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소장본, 청구기호 M古3-2005-12)
3. 민족문화추진회, 『연려실기술 10,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2.
4. 서울大學校 奎章閣 [編],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5. 윤국일 옮김,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2005.
6. 金鑪, 『翰臯觀外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7.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8. 김홍균, 「조선 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9. 손홍렬, 「조선중기 의료제도의 개편(治腫廳의 置廢와 三醫司를 中心으로)」, 『구암학보』, 1993.
10.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 -治腫方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11. 이정록, 「渤海醫學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줄고, 「우리나라 의서에 나타난 한방 외과에 대한 개괄」, 『한국의사학회학술대회』, 2006.
13.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inchu.or.kr/>
14. 승정원일기 웹사이트
<http://sjw.history.go.kr/>